Issues & Insights
on Economy, Technology, and Security

발행처 경제기술안보연구원
발행인 김성한

제45호 (26-10) 2026년 10월 26일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미중 그레이트 게임: 한국에 대한 시사점

Hormuz Crisis and U.S.-China Great Game: Implications for Korea

안세현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장/(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초록>

이 글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미중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경제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의 셰일 혁명 이후 미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은 크게 줄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이 지역의 정세 변화에 민감하다. 이러한 비대칭 때문에 미국은 해협 봉쇄의 비용을 거의 치르지 않고 중국의 약점인 석유 수입과 해상수송로를 압박할 수 있다. 중국은 실질적인 중·이란 에너지 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달러 시스템과 서방 제재에 취약해 전략적 부담이 극단적으로 커졌고, 글로벌 초크포인트 관리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이란의 현 리더십이 유지되는 한 봉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글로벌 에너지 거래의 중심은 중동에서 북미·중미·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한미 에너지 안보동맹과 한·캐나다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첫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상업성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극 경쟁이라는 안보적 맥락에서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유전·가스전의 탐사·개발·생산 등 상류 부문에 대한 투자와 참여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우 전쟁 종료 후에는 동시베리아 태평양(ESPO) 원유 협력의 정상화를 검토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ait of Hormuz crisis through the lens of the U.S.–China energy great game and draw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energy and economic security. Since the shale revolution, the strait has become far less strategically significant for the United States, while China remains acutely exposed to disruptions in the Gulf. This asymmetry allows Washington to pressure Beijing's core vulnerabilities, namely its dependence on imported oil and its seaborne supply routes, at little cost to itself. China, by contrast, faces a mounting strategic burden. Its energy cooperation with Iran is far more limited than it appears, and it remains exposed to the dollar system and Western sanctions. Uncertainty over the management of global chokepoints has grown. As long as Iran's current leadership remains in place, further closures are likely. The center of gravity in global energy trade is therefore shifting from the Middle East toward the Americas. Seoul should treat this shift as an opportunity to deepen the U.S.–ROK energy alliance and expand energy cooperation with Canada. Specifically, the article recommends three steps: First, evaluate the Alaska LNG project not only on commercial terms but also within the strategic contex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Arctic competition, and invest in it early. Second, expand imports of Canadian crude oil and gas, and extend Korean participation into upstream operations. Finally, consider restoring ESPO crude oil cooperation with Russia once the war in Ukraine ends.

본 글에 게재된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에 바탕을 둔 것으로, 경제기술안보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호르무즈 해협의 최근 트렌드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그리고 아라비아해를 잇는 좁은 해상 통로이다. 이 해협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초크포인트로 평가받아 왔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은 약 33km에 불과하며, 선박이 실제로 통항하는 항로는 양방향 각각 약 3km 폭의 분리 통항로로 제한된다. 이처럼 지리적 병목 구조 때문에 소규모 교란만으로도 국제 에너지 시장 전체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이란, 카타르 등 주요 산유·산가스국의 수출 물량 상당 부분이 이 수로를 통과한다. 특히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은 사실상 전량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한다. 이렇게 수송된 막대한 규모의 원유와 가스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동북아·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과 서유럽 시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 해협은 지역 문제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럼에도 2010년 전후 본격화된 미국의 셰일 혁명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위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셰일 오일·가스 생산 급증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산유국이자 주요 LNG 수출국이 되었고, 그 결과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직접적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이전과 비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자국 에너지 공급의 생명선이라기보다 동맹국과 국제 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리 대상에 가까워졌다.

다만 원유는 대체로 국제 가격으로 거래되는 글로벌 시장 상품이므로, 해협이 막히면 미국도 가격 상승이라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물리적 공급 차질의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여 수준을 재조정하는 전략적 배경이 되었다.

반면 중국은 중동산 원유와 가스 수입 비중이 높아 이 지역의 정세 변화에 여전히 민감하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해상 수송로 안보,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와 연결되는 에너지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국은 높은 의존을 유지하는 구조적 비대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비대칭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다. 미국에게는 지렛대가 될 수 있고, 중국에게는 취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해외 원유와 가스의 도입을 꾸준히 늘려 왔다. 이는 중동 의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다. 늘어난 비(非)호르무즈 물량은 대부분 미국산이다. 셰일 혁명 이후 미국산 원유와 LNG가 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수출되면서 새로운 대안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캐나다산 에너지도 이 물량에 포함된다. 캐나다는 정치적 안정성과 자원 규모를 갖춘 공급국이며, 태평양 연안 LNG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시아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미중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과 미국의 전략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이란 간의 복잡한 3자 관계는 국제정치에서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며, 미중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된 점을 이용해, 지난 10년 간 이란을 끌어들여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한 대중국 압박에 나설 생각을 해왔다.

미국의 전략적 구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미국은 새로 확보한 에너지 패권을 이용해 중국의 약점인 석유 수입 의존도를 공략할 수 있다.

②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피해 없이 중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 의회가 이란 핵 협상을 거부하거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묵인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해상 통로가 막히게 된다.

④ 이 경우 중국은 석유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인플레이션 급등과 위안화 가치 폭락 등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요컨대 호르무즈 봉쇄의 최대 피해자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 이란 문제와 미국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문제는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 대통령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이란과 패권을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다만 사우디와 이견이 생기면, 특히 민주당 집권기에는 워싱턴이 테헤란과 관계를 회복하거나 대이란 경제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설정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 공화당 정권의 경우, 이란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 해결은 과거에 비해 훨씬 쉬워졌다.[1] 에너지에 대한 중동 의존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며, 이는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첫째는 미국 내 셰일 혁명이고, 둘째는 셰일 혁명 이전부터 캐나다로부터 막대한 에너지가 미국으로 수입되어 왔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렸다. 한국의 경우 러·우 전쟁과 최근 호르무즈 사태 이후 미국과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 물량을 추가로 늘렸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더라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적 비난과 국내 유가의 일시적 상승 외에는 1970~80년대에 비해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호르무즈 봉쇄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통제 강화 및 러시아 그림자 선단, 이란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와 맞물려,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국내 원유 생산을 기반으로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가이아나와 수리남 등 미주 지역의 대체 공급원을 활용함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호르무즈 봉쇄가 초래할 국제적 재앙을 우려해 이란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이란 전략 역시 대다수 언론의 평가처럼 교착 상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의 본래 조준점은 베네수엘라, 향후 쿠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란의 항전으로 작전이 난항을 겪는 듯 보이지만, 중국행 해상 원유·LNG 수송 봉쇄는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이란발 그림자 선단은 길이 막혔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국에 보낼 원유도 바닥났으며, 이란은 33조 원 규모의 석유 수출 수입을 잃은 셈이다.

□ 중국의 한계

반대로 중국은 호르무즈 봉쇄로 매우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미중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에서 중국의 최대 약점은 해상수송로와 국제유가이다. 중국과 이란 간 에너지 협력과 거래는 보이는 것과 달리 극히 제한적이다. 중·이란 에너지 거래 역시 달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방의 대이란 제재 프레임에 매우 취약하며, 바터식 물물교환이 최대치인 셈이다. 다시말해 중국과 이란 간 원유거래는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양국에 윈윈게임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양국 간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 역시 양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해외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75% 이상인 중국에 호르무즈 봉쇄는 국가경제에 치명적이다. 설사 이란이 선별적으로 중국 에너지 상선들을 상대로 낮은 통행료 부과나 무료로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이란과의 공조로 인한 국제적 이미지 손상은 결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요컨데 최근 호르무즈 사태에서 미국의 대중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페르시아만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수송은 호르무즈 사태 이후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란과 중국 간 에너지 협력은 물론 양국의 안보 협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마디로, 미국의 중국 에너지 해상 수송로 봉쇄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중국이 짊어진 전략적 부담은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국가안보의 치명적 약점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에서도 드러나듯이,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와 해상 수송로의 불안에 있다.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자력으로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이란과 중동지역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최근 호르무즈 사태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글로벌 국제정치경제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첫째, 글로벌 초크포인트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이를 관리하는 국가들의 돌발적인 정책 변화와 독점적 횡포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다. 보스포로스, 파나마 운하, 수에즈운하, 바벨만다브, 그린란드 등도 호르무즈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이란의 현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언제든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추세로는 미국과 이란간 분쟁은 빠른

시일내에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것이며, 호르무즈를 둘러싼 에너지 안보는 미해결 과제로 남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불안한 지정학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 충돌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기약할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빠져들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호르무즈가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거나 없는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 해답은 북미, 중미, 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에너지 안보와 경제안보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한·미 에너지 동맹 강화와 한·캐나다 에너지 협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알래스카 자원개발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 한국 에너지 안보의 모범 답안이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국, 일본, 대만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허브로 재탄생할 수밖에 없으며, 단순한 에너지 안보를 넘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래스카의 국가안보 전략적 측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다.

국내외 에너지공학·경제학 측면의 사업성 평가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워싱턴의 정치 메커니즘, 한미동맹이라는 단순한 상업성을 뛰어넘는 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은 채 계산된 경향이 강하다. 안보 전문가들조차 신문과 시사 평론가들의 언급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도 알래스카 개발을 트럼프 폄하와 중간선거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알래스카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며, 러시아와의 북극 개발 경쟁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한미 에너지동맹과 군사동맹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투자 가치 또한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한미동맹의 여러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관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대북 정보 공유,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일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 등 한미동맹의 민감한 현안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해 협상하려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하향식(top-down) 리더십을 지닌 트럼프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협상용 '빅카드'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점에 제시함으로써 현안을 일괄적으로 타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의미에서, 분명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유용한 빅카드이다.

미국 알래스카 투자는 과감하고 선제적이어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남·북·러 시베리아 가스관 프로젝트, 한·중 해저 전력 연계 프로젝트,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러시아 서캄차카 프로젝트보다 정치적·경제적 리스크가 훨씬 낮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나 각종 시베리아 가스 개발 사업도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PNG(배관천연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 인프라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였다. 게다가 시베리아 가스의 공급원은 다양하면서도 불분명했고, 파이프라인 길이도 알래스카 프로젝트보다 몇 배나 길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렵고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린 러시아 리스크, 중국과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경유국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자원개발 역사에서 뼈아픈 실패로 남은 서캄차카 해상 유전 개발도 같은 교훈을 준다. 국내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과감히 진출했지만, 러시아의 고질적인 정치 리스크로 사업은 무산되었다. 이후 제대로 된 보상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러시아 리스크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사업이며, 국제적 여건도 우호적이다.

● 캐나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앨버타주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중질유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물량의 최적 대안이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앨버타 지역의 원유 수입을 전년 대비 227% 늘렸으며,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캐나다 서부 수출 터미널인 키티맷 항구를 보유한 'LNG 캐나다'의 지분을 인수하여 현지 유전·가스전의 탐사·개발·생산 등 캐나다 가스 상류 부문(upstream)에까지 진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캐나다산 가스 운송물량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캐나다 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리스크와 도전 과제, 미국산 에너지와의 가격 경쟁력, 미국과의 에너지 관계 등 여러 잠재적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한·캐나다 에너지 거래는 이제 한국 에너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재개 역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러시아 동시베리아-태평양(Eastern Siberia Pacific Ocean Oil Pipeline, ESPO) 송유관은 지난 15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동 프리미엄을 상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지정학적 갈등으로 큰 차질을 빚었던 것과 달리, ESPO를 통한 아시아 지역 원유 공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무엇보다 국내 경유 가격 안정화와 우라늄 공급 측면에서, 전쟁 이전 수준의 에너지 협력 정상화는 한국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ESPO는 신규 프로젝트가 아니라 러우 전쟁 이전 한국과 러시아 간에 활발했던 원유 협력 프로젝트이다.

□ 맺음말

최근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첫째, 글로벌 에너지 초크포인트(chokepoint)의 안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에너지 초크포인트가 관리하기 어렵고 국제분쟁의 불확실성이 높은 화약고 같은 지역이며,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에너지 해상 수송 봉쇄 전략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둘째, 글로벌 에너지 주요 거래 지역의 중심이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북미·중미·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 전역에서 에너지 생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끝으로 북미 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은 지정학적 위험 계산이 배제된 기존의 사업성 평가와 구분되어야 하며, 한미 동맹, 에너지협력, 경제안보, 한·캐나다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맞추는 일이다.

결국 한국은 셰일혁명 이후 유례없는 에너지 슈퍼파워로 부상한 미국과 에너지 안보 협력을 전 세계 지역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한미 에너지 안보 협력은 한미동맹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넘어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호르무즈 해협·말라카 해협·파나마 운하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초크포인트에서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수송 관리와 안전 확보에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러시아와도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에너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 BIO



안세현

- 現) 서울시립대 정경대 학장 & 국제관계학과 교수 및 사회과학연구소장
- 現) 미국 Washington DC 소재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씽크탱크 (Board of Advisor) 보드고문
- 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 런던정경대 국제관계학 박사

Email: ahns@uos.ac.kr

Se Hyun AHN

- (Current) Dean of the College of Government and Economics, University of Seoul
- (Current) Board of Advisor, NBR(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Washington Think Tank
- (Forme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Security, Office of National Security,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Office
-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안세현 교수는 현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국제관계학과 교수 및 사회과학연구소장으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역임하였다. 또한 미국 Washington DC 소재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씽크탱크 고문(Board of Advisors)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원(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고문을 역임하였다. 런던정경대학(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국제관계학과 박사, 조지타운대학교 (Georgetown University) 외교대학원 석사, 코넬 대학 (Cornell College) 학부, (푸틴이 졸업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에너지 광물자원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저서로는 『에너지 그레이트 게임』, 『경제안보란 무엇인가?』가 있다.

Se Hyun Ahn served as the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Security at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Office, and is serving as the Dean of College of Government and Economics and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University of Seoul. He is also a member of the NBR Board of Advisors and the advisory board for the Pacific Energy Summit at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Professor Ahn received his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He holds a BA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ussian Studies from Cornell College and an MA from the School of Foreign Service at Georgetown University. He also studied at the St. Petersburg Mining University in St. Petersburg, Russia. He is also an author of *Power Struggles: Energy Security and Energy Diplomacy in the Asia Pacific (Palgrave Macmillan, 2022); Policing Northeast Asia: The Politics of Security in Russia and Korea (Palgrave Macmillan, 2020); and What is Economic Security? (Chung Media, 2022); Energy Great Game(University of Seoul Press, 2025).*